

목포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도입 속도나

맞벌이·양육 공백 가정 밀착 지원
‘병원 동행→진료후 돌봄’ 원스톱
고향사랑기부 연계 재원방안 검토
市 “필요성 공감 목포형모델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제1차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늘면서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공 돌봄 서비스가 주로 건강한 아동의 일상적인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제 는 아동 질병과 치료 과정까지 공공 돌봄의 영역 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전남광주특별시 북구 등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와 유사한 긴급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실정에 맞는 ‘목포형 아픈 아이 긴급돌봄’ 모델 구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는 보호자가 직장이나 생업으로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 어려울 때 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병원 동행부터 진료 후 돌봄까지 밀착 지원하는 생활 복지 서비스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장염 등으로 진료가 시급 할 때 부모를 대신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크게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으로 나뉜다. 전담 인력이 어린이집, 학교 등 지정 장소에서 아동을 인계받아 병원으로 이 동한 뒤 점수와 진료, 수납, 약 처방 등 전 과정을 동행한다.

진료 후에는 부모가 퇴근해 아이를 인계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병상 돌봄을 제공한다. 사업 대 상은 4세부터 초등학교까지를 우선으로 한다. 이용료는 전면 무료로 하되 실제 발생하는 진료 비와 약제비만 보호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성패는 철저한 안전망 구축으로 종사 자에 대한 체계적 사전 교육은 물론, 병원 동행· 아동 인수인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응급 상황 발 생 시 의료기관과 즉각 연계할 수 있는 대응 매 뉴얼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목포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내 고향의 아이들이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익적 취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본 질과 부합해 출향인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아픈 아이 긴급 돌봄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 다”며 “맞벌이가정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생활 복지 서비스로서의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 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존 돌봄 사업과의 중복성, 실제 이용 수요, 운영 인력·안전 관리 체계를 검토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 목포만의 실효성 있는 돌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36억 융자지원

年 1.8% 저금리...구입·외상 상환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10일 “사료 가 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 를 위해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36억5천800만원 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 배정된 96억8천600만원을 포 함하면 올해 영광군 사료구매자금 총 지원 규모 는 133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한우 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 관내 축산농가와 농업 법인이다. 지원된 자금은 신규 사료 구입 은 물론, 기존 사료 외상 대금 상환 용도로도 사

용할 수 있다. 융자 100%에 연 1.8%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2025년 대출 실행분에 대해서는 총 7천700만 원 규모 내에서 1%의 이자를 추가 지원해 농가 의 이자 부담을 더 낮췄다.

하반기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관 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1월9일까지 농·축협을 통해 대출 실행을 마무리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에 자금 지원이 경영 안정의 마중물 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기한 내에 융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제수·선물용 농산물 안전성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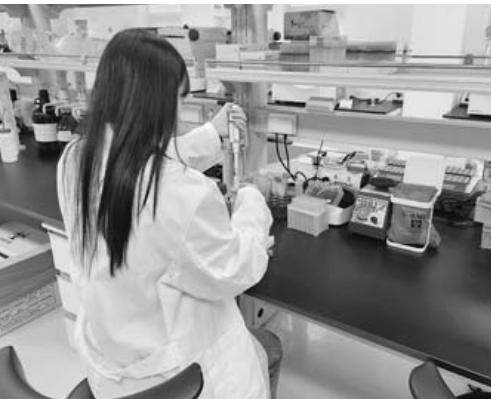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10일 “추석 명 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안전성 분 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집중 검사 대상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류와 배추, 무 등 제수용 채소류다.

군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을 분석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 물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방침 이다.

사후 관리와 예방 교육도 강화해 적발 농가에는 맞춤형 안전 사용 지도를 실시하고 일반 농 업인들을 대상으로는 농약안전 사용 기준 준수 와 올바른 사용 요령을 홍보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는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등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전



문적인 분석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생산부터 유통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 해 해남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키 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롯데마트 추석 맞이 전복 특판

16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기획전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10일 “추석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완도 전복 소비 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는 완도 전복이 포함된 다채로운 추석 명절 선 물 기획전이 진행된다. 군은 대형 유통 업체와 의 협력을 강화해 전복 판로를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전복 을 만나볼 수 있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도 마련 된다.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열리는 ‘전남도 직거래 장터 큰 잔치’를 비롯해 10월30

일까지 수도권 주요 자치구·자매결연 도시 장 터에서 싱싱한 완도 전복을 선보이며 전방위 판 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김진 완도군수는 전날 전남광주 서구 롯 데마트 월드킴점에서 열린 전복 특판 행사장을 직접 찾아 판촉 활동을 펼쳤다. <사진>

김 군수는 현장에서 전복 판매 동향을 살피고 마트 관계자들과 전복 유통망 확대 방안을 논의 했다.

김진 군수는 “영양소가 풍부해 ‘바다의 산삼’ 으로 불리는 완도 전복은 가족과 지인을 위한 최고의 명절 선물”이라며 “경기 침체와 소비 부 진으로 시름하는 어가를 위해 전복을 많이 구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기준과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제공>

“목포대 국립의대 탈락은 명백한 불공정 심사”

송하철 총장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성토
“순천대 부지 선정 위법 불구 우위 선발”
총학생회도 정부 차원 철저한 검증 호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후보로 국립순천대가 선정된 가운데 탈락한 국립목포 대가 불공정 심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평가는 평가 시 점에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 다”며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선정됐으나 심 사 기준과 과정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송 총장은 “국립의대는 법령상 국유지 에 설립돼야 함에도 순천대는 지자체 부지 무상 임대라는 위법적 계획을 냈다”며 “제출 당사자 나 지자체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교육부가 뒤 늦게 보안을 통보했음에도 심사기관인 전남연 구원은 이를 간과하고 부지 확보 항목에서 동일 하거나 우위의 점수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신설 국립대병원 완공에 평 균 83개월이 소요되는데 순천대는 구체적 공정 표도 없이 60개월 만에 전면 개원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냈다”고 성토했다.

목포대는 84개월의 상세 공정표와 임시 교육 병원 확보 계획까지 10페이지에 걸쳐 제출하고

도 해당 항목에서 순천대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 았다는 게 송 총장의 입장이다.

그리면서 송 총장은 “단 50분간 진행된 심사 에 건축·시설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학생들 앞에서 불공정을 이야기하게 돼 2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부끄럽고 참담하다. 불공정 으로 인한 결과가 회복될 때까지 학교 구성원,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연단에 선 권범석 목포대 총학생회장 도 “원칙을 지키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좌절감을 청년들에게 남기지 말아 달라”며 “정의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될 수 있 도록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학교 참가자 모집

16일까지 중1~고2 청소년 20명 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10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신안군 신재생에너지학교를 운영하 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안의 바람과 햇빛,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미래 에 너지 산업에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한다.

모집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 학년까지 20명 안팎이다. 오는 16일까지 접수 하며 19일부터 11월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 영한다.

주요 일정은 19일 자은도 해상풍력 현장학습 을 시작으로 10월17일 전복 부안 신재생에너지 데마파크 체험이 예정돼 있다.

10월24일에는 광주교육대학교 창의융합관에 서 신재생에너지와 AI 그리고 메이커스 프로 그램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활 동에 참여한다.

마지막 일정인 11월6~7일에는 1박2일간 제주 도를 찾아 에너지 시설 탐방과 문화 체험을 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방문·팩스·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양호진 기자



영암産 농특산물, 광주 직거래장터서 인기

무등산자이 아파트서 11개 업체 참여
6천만원 판매고·신규고객 500명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10일 “최근 전 남광주 북구 무등산자이엔어울림 아파트에서 열린 2026 도농 상생한마당 직거래장터에서 영 암 우수 농특산물이 광주 도심 소비자들의 입맛 을 사로 잡았다”고 밝혔다.

직거래장터에는 지역 생산·가공업체 11곳이 참 여해 축산물, 김치, 무화과, 멜론, 고구마, 쌀, 사인머 스킷, 민물장어 등 영암산 먹거리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영암무화과축제와 일정이 겹쳐 참여 업체 수가 지난해 17곳보다 다소 줄어들면

서 전체 매출 규모는 감소했다.

하지만 업체 한 곳 당 평균 매출은 지난해 478 만원에서 올해 553만원으로 15.7%나 증가했으 며 총 6천8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군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영암몰’과 카카 오톡 채널 홍보 이벤트를 병행해 신규 고객 500 명을 확보했다. 향후 온라인 재구매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업체 당 판매액이 크게 늘어 지역 농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내실 있는 장터였다”며 “도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대면 장터를 열고 온라인 판로와 연계해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